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신지애 "올해의 선수 꼭 해야겠다"

오늘 LPGA 챔피언십 출전…오초아와 앞뒷조 싸움

'골프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09시즌 마지막 대회를 앞두고 올해의 선수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19일(이하 한국시간) 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휴스터니안 골프장(파72·6천650야드)에서 시작되는 LPGA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에 출전하는 신지애는 현재 올해의 선수 포인트 156점으로 148점의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따돌리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1978년 낸시 로페스(미국) 이후 31년 만의 신인왕-상금왕-올해의 선수 동시 석권을 눈앞에 둔 신지애는 18일 연습 라운드를 마치고 가진 인터뷰에서 "그동안은 한 시즌 전체를 보면서 왔기 때문에 '올해의 선수를 해야겠다'는 말을 안 했지만 이제는 마지막 한 대회만 남았다"며 "일부러 표현을 안 해왔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마지막이고 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각오를 밝혔다.

16일 멕시코에서 끝난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확정 짓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만일 이번 주에도 확정을 짓지 못한다면 아쉽겠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날 연습 라운드에 대해 "평탄하지만 코스가 길고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곳이다. 짧은 파 5홀이 몇 개 있지만 잔디가 어렵고 바람이 많은 것 같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은 신지애는 "1년을 통틀어 이런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고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신지애는 19일 밤 11시20분에 최나연(23·SK텔레콤), 브리타니 린시컴(미국)과 1라운드를 시작한다. 신지애와 올해의 선수, 최저타수, 다승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오초아는 신지애보다 10분 먼저 카리 웹(호주), 청야니(대만)와 함께 티샷할 예정이다. 지난주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누린 위성미(20·나이키골프)는 20일 오전 2시50분에 크리스티 커(미국), 재미교포 김초롱(25)과 1라운드에 나선다. /연합뉴스

유소연		서희경
5억9358만1500원(2위)	상금	6억375만9286원(1위)
70.84타(3위)	평균타수	70.54타(1위)
30.77개(29위)	평균퍼트	30.30개(8위)
79.20%(2위)	그린적중율	77.39%(5위)
61.47%(3위)	페어웨이적중율	61.09%(4위)
252.87야드(15위)	드라이버 샷 비거리	254.06야드(12위)
70.59%(공동 2위)	톱10 피니시율	70.59%(공동2위)

KLPGA 상금왕 놓고 내일 ADT캡스챔피언십서 최후의 샷 대결

'필드의 슈퍼모델' 서희경(23·하이트)과 10대 선두 주자인 유소연(19·하이마트) 중 누가 올해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금왕에 오를까.

서희경과 유소연이 20일부터 사흘간 제주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파72.6천296야드)에서 열리는 올 시즌 마지막 대회인 ADT캡스챔피언십에서 2009년 KLPGA 상금왕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

이번 대회 총상금은 3억원이고 우승 상금은 6천만원이다. 컷오프 없이 54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치러진다.

올 시즌 똑같이 4승을 올리며 다승 공동 선두를 달리는 상금랭킹 1위 서희경의 상금은 6억376만원, 2위 유소연은 5억9천358만원. 상금 차이가 1천18만원에 불과해 이번 대회에서 상금왕과 다승왕이 가려지게 됐다.

서희경과 유소연은 최근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일방적인 승리를 점치기 어렵다.

여름 동안 주춤했던 서희경은 9월 신세계 KLPGA 선수권대회 2위에 이어 10월 하이트컵 챔피언십과 KB국민은행 스타투어 그랜드파이널에서 우승하며 상승세를 탔다. 직전 대회인 대신증권 토마토투어 한국여자 마스터즈에서도 4위에 올랐다.

유소연은 8월 SBS채리티 여자 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이후 우승과 인연이 없었으나 하이트컵 챔피언십 4위, KB국민은행 스타투어 그랜드파이널 4위, 가장 최근 열린 대신증권 토마토투어 2위 등 우승권에 근접해있다.

올 시즌 경기 기록도 백중세다.

평균타수는 서희경이 70.54타로 1위고 유소연이 약간 뒤진 3위(70.84타)이며, 평균 퍼트 수도 서희경이 30.30개(8위), 유소연이 30.77개(29위)로 거의 차이가 없다.

드라이브 비거리도 서희경(254.06야드)과 유소연(252.87야드)은 불과 1야드 차에 불과하다.

이들 이외에도 이번 대회에는 8월 넵스 십마스터피스에서 생애 첫 우승한 이보미(21·하이마트)와 9월 신세계배 KLPGA선수권대회 우승자 이정은(21·김영주골프), LG전자 여자오픈 초대 챔피언 임지나(22·엘로드) 등 상위 랭커들이 참가해 올 시즌 대미를 장식한다.

프로 선수 62명에 더해 아마추어 추천 선수로 제주도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한정은(중문산업고 2년)과 박주영(표선중 2년) 등 총 64명이 출전한다.

우승자에게는 조각가 김인겸 선생이 제작한 ADT캡스의 브랜드 심벌인 옥타곤 트로피와 우승 재킷을 주며 1년간 ADT캡스의 통합 무인 경비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한다.

또 대회 스폰서인 오리스가 300만원 상당의 시계도 부상으로 준다.

SBS골프채널이 전 라운드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생중계한다. /연합뉴스

이종범·김상훈 등 日서 온천훈련

건강 검진·재활 훈련… 호랑이 겨울 채비 분주

동면기를 앞둔 호랑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12월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비활동기간이다. 겨울 전지훈련부터 가을잔치까지 쉼없이 한 해를 달리는 선수들에게는 유일하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다.

12월을 앞두고 KIA 선수들은 겨울나기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KIA는 올 해 유난히 긴 시즌을 보냈다. 10월에는 한국시리즈 일정을 소화했고, 한국챔피언 자격으로 일본을 찾아 요미우리와의 경기를 치르느라 11월도 금세 절반이 지났다.

4강 탈락으로 일찌감치 공식일정을 마감했던 지난해에 비하면 두 달 가량 시즌이 길게 이어졌다.

숨가쁜 시즌을 보낸 1군 선수단은 18일 정기검진을 받느라 서울을 다녀왔다. 이날 검진결과에 따라 선수들은 남은 일정동안 재활군에서 몸을 추스르기도 하는 등 훈련계획을 잡게 된다.

남해는 여전히 야구 열기로 뜨겁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마무리 캠프는 계속되고 있다. 내년 시즌에 대한 희망을 품고 달리는 2군 선수들이 주축이 돼 남해가 뜨겁다.

무등경기장에도 선수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재활중인 선수들과 신고선수 등 남해를 찾지 못한 선수들은 무등경기장에서 겨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온천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종범, 김상훈, 유동훈 등 일부 선수들은 한·일클럽챔피언십이 끝나고 벳푸로 자리를 옮겨 온천훈련을 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있다. 이들은 21일 귀국길에 오른다.

25일에는 우승여행이 선수단을 기다리고 있다. KIA 선수들은 2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사이판으로 우승여행을 떠난다. 가족들의 경비도 일정부분 구단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KIA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회포를 풀게 될 전망이다.

초미의 관심사인 조범현 감독의 재계약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던 재계약은 성사 단계에 이르렀지만 조 감독이 17일 심한 감기몸살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며칠 더 시일이 거릴 전망이다.

구단측은 "한국시리즈 직후 재계약이 성사됐으면 좋겠지만 우승 이후 일정 등을 소화하느라 시일이 늦어졌다"며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어느정도 합의점에 이른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재계약이 늦어지면서 조범현호 2기 코칭스태프 발표도 미뤄지고 있다. 하지만 내부 조율은 모두 마무리 된 상황이다. KIA는 조 감독의 계약이 마무리 되는 대로 코칭스태프 개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8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09 아시아 펜싱 선수권대회 한국과 중국의 여자 샤브르 단체 결승전에서 중국의 바오잉잉(왼쪽)이 공격을 하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중국에 26-45로 패해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펜싱 남자대표, 亞선수권 에페 단체 金

女 샤브르 단체 준우승

한국 펜싱이 2009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연일 금메달 낭보를 전해왔다.

박경두·안성호(이상 익산시청), 정승화(부산시청), 심승환(청주대)으로 이뤄진 남자 대표팀은 18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대회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카자흐스탄을 45-44, 1점차로 누르고 우승했다.

박경두는 개인전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

그러나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결승에서 중국에 26-45로 패해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전날 남현희(서울시청)와 김정환(국민체육진흥공단)이 여자 플뢰레와 남자 사브르에서 정상을 밟는 등 대표팀은 이날까지 금메달 4개, 은메달과 동메달은 각각 3개와 7개를 따내 종합순위 1위를 질주 중이다.

/연합뉴스

KPGA 상금왕 배상문 日 투어 출전

한국프로골프(KPGA) 상금왕 배상문(23·키움증권)이 2009년 시즌 마무리를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일본 땅을 다시 밟는다. 배상문은 올해 KPGA 2년 연속 상금왕과 함께 최우수선수에게 주는 발렌타인 대상, 최저타수상을 휩쓸며 한국골프의 에이스로 우뚝 섰다.

최종 목표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두고 있는 배상문은 PGA 투어 퀄리파잉스쿨을 통해 직행하기 보다는 일본프로골프투어를 발판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배상문은 12월2일 일본프로골프(JGTO) 퀄리파잉스쿨에 출전할 예정이지만 19일부터 사흘간 일본 미야자키현 피닉스 골프장(파71·7천10야드)에서 열리는 JGTO 투어 던롭피닉스 토너먼트(총상금 2억엔·우승상금 4천만엔)에서 우승하면 2년간 시드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상문이 올해 해외 대회에서 거둔 성적은 좋지 않았다.

배상문은 지난 9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아시아-퍼시픽 파나소닉오픈 1라운드에서 10오버파 81타를 친 뒤 기권했고 이달 들어서도 유럽프로골프투어와 아시아투어가 공동 주관한 바클레이스 싱가포르 오픈 공동 31위, UBS홍콩오픈에서는 컷 탈락했다.

여기다 출전 선수도 만만치 않다. PGA 투어의 강호 비제이 싱(피지), 2008년 유럽투어 상금왕 로베르트 카를손(스웨덴), JGTO 상금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의 슈퍼스타 이시카와 료가 출전한다. /연합뉴스